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(2월 3주)

-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-

1. 나이지리아 경기침체 탈출 … 2020년 4분기, GDP 성장률 0.11%

○ 통계청(NBS)에 따르면 주재국은 2020년 4분기에 국내총생산(GDP)이 0.11% 성장하면서,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(2020.2분기 : -6.10%, 3분기 : -3.62%)를 벗어남

- 오일 부문 -19.76%, 비오일 부문 1.69% 등 비오일 부문 호조로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, 특히 정보통신(15.9%), 농업(3.42%) 등이 회복 주도

○ 한편, 2020년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-1.92%를 기록하여, 2019년(2.27%) 대비 4.19%p 감소

- 오일 부문 -8.89%, 비오일 부문 -1.25% 등 경제 전반이 침체를 보인 가운데, 농업 부문은 2.17% 성장

○ 이와 관련, 전문가들은 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은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

- 반면에 외환유동성 악화, 소비자 물가 상승, 고용 악화 등 실제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의견도 제기

【출처 : Daily Trust, Punch(2.19)】

2. 1월 소비자물가 16.47% 상승, 45개월만에 최고치 … 식품 가격은 2008.7월 이후 최고인 20.9% 상승

○ 통계청(NBS)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6.48%를 기록, 지난 12월(15.75%) 대비 0.72%p 상승하였으며 2017년 4월(17.24%)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

-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식품가격은 20.57% 상승률을 기록, 12월(19.56%) 대비 1.01%p 상승하였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

- 지역별로는 △도시지역 17.03%(12월 16.33%), △농촌지역 15.92%(12월 15.20%) 상승하였으며, 농산물제외 물가지수는 11.85%(12월 11.37%) 상승

○ 식품 가격 관련, 전문가들은 국경 개방,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(AfCFTA) 협정, 코로나19 백신 등을 감안시 금년 2~3분기에 상승세가 꺽일 것이라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, 농민과 목축업자간 갈등 지속 등 농장지대에서의 치안 불안으로 상승세 지속 우려

-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주재국 항구에서의 운영상 어려움, 외환 접근 어려움 등을 지적

【출처 : Proshare, Guardian(2.17)】

3.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(FDI), 10.1% 증가 … 26개 州는 투자 전무

○ 주재국 통계청(NBS)은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(FDI)가 약 10.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(9.3억 달러) 대비 10.1% 증가하였다고 발표

○ 다만, △포트폴리오투자 51.4억 달러(전년 대비 68.6% 감소), △기타 투자 35.1억 달러(전년 대비 47.5% 감소) 등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96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9.7% 감소

- 업종별로는 은행업 37.5억 달러(38.7%), 금융업 18.9억 달러(19.6%), 주식 18.5억 달러(19.1%) 등에 주로 투자

- 영국이 전체 투자액의 43.1%인 41.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, UAE 9.0억 달러(9.3%), 네덜란드 8.9억 달러(9.2%), 남아공 8.8억 달러(9.0%) 등 順

- 대부분 자금은 라고스 州(83.0억 달러, 전체의 85.8%) 및 Abuja(12.7억 달러, 13.1%)에 투자되었으며, 26개 州는 투자 전무

○ 한편, 2020년 4분기 외국인 투자액은 △FDI 2.5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2.3% 감소), △포트폴리오 투자 0.4억 달러(98.1% 감소), △기타 투자 7.8억 달러(52.9% 감소) 등 총 10.7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71.9% 감소

【출처 : 나이지리아 통계청(NBS)】

4. 자동차 산업단지 3개소 건설 및 투자자 10년간 면세 … 자동차 현지 생산 촉진

○ 자동차디자인개발위원회(NADDC)는 2.16(화) 자동차 현지 생산 촉진을 위해 필요 인프라가 제공되고 투자자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단지 3개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

- 자동차 산업단지는 △Anambra州의 Nnewi 지역, △Osun州의 Ede 지역, △Kaduna州에 건설 예정으로서, 국가자동차산업 개발계획의 일환

○ 또한 동 기관은 자동차 산업 투자자들에 대해 10년간 세금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

【출처 : Premium Times(2.16)】

5. 36개 국가자산 매각 추진 … 4,934억 나이라 수익 예상

○ 주재국 정부는 2021년 예산(13.58조 나이라)의 재원 마련을 위해 36개 이상의 국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민영화 계획

- 정유소, 송전공사(TCN), 아부자 국제회의센터(ICC), Yola 배전회사, Afam 발전소, 국가통합발전소(NIPP), 라고스 국제무역박람회단지 등이 포함

○ 매각은 △핵심 투자자 매각 △지분 매각 △컨세션 △상업화 △자발적 구매자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,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

【출처 : Premium Times(2.18), Punch(2.19)】

6. 영국 대법원, Niger Delta 기름 유출사고 피해자들의 Shell 본사에 대한 소송 인정

○ 영국 대법원은 2.12(금) 주재국 Niger Delta 지역에서 수십 년 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사회가 영국 법정에서 Royal Dutch Shell 본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

- 해당 지역사회(2개소)는 주재국 자회사(SPDC) 뿐만 아니라 Shell 본사를 대상으로 청소 및 보상 청구 소송 가능

※ 피해자들은 주재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영국 대법원에서 Shell 본사와 주재국 자회사에 대한 소송 진행 주장

○ 동 판결로 다국적 기업인 Shell社는 자회사가 해외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됨

○ 한편, Shell社는 동 사고는 파괴와 도난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, 주재국 법에 따르면 파괴에 따른 피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

【출처 : Premium Times(2.13)】

7. 나이지리아, 브라질로부터 12억 달러 대출 … 농업 활성화

○ 나이지리아와 브라질 정부는 주재국 농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12억 달러 양해각서를 체결

- 브라질 개발은행이 제공하고 이슬람 개발은행과 이슬람 수출신용보험공단이 보증하는 이번 융자액은 상환기간 15년, 이자율 3% 조건으로서, 주재국 농업 기계화 및 농가공 센터 건설에 사용 예정

【출처 : Guardian(2.19)】

8. 영국, Lagos에 1.5억 달러 상당의 폐기물 공장 설립

○ 영국 정부는 주재국 Lagos州에 첫 번째 폐기물 에너지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투자(FDI)를 지지

- 주나이지리아 영국대사관에 따르면, 에너지기업인 West African ENRG 社가 매일 2.5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25MW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1.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

○ 이와 관련 Lagos州 관계자는 동 투자가 Lagos州의 사업 환경이 뛰어남을 의미한다며, 동 州가 인프라 등 기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을 강조

【출처 : Guardian, Vanguard(2.17)】

/ 끝 /